

TU-Berlin 교환학생 후기

전자과 20110411

정영승

2014 년 2 학기, TU-Berlin 으로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후기를 작성합니다. 선배들의 후기들을 보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준비하면서, 도착해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후기를 보고 있을 분 또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느꼈던 감정이나 기존의 정보를 제외하고 TU-Berlin 으로 단기유학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교환학생 지원

- a. 지원 - 교환학생 신청 공지는 교내회보 및 메일로 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과정 또한 국제협력팀 선생님들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b. 기숙사 - 교환학생으로 선정되면 TU-Berlin 으로부터 기숙사를 선택하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2014 년 가을학기의 경우 3 종류의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과 비교해본 결과, **학교와 가까운 기숙사가 제일 좋은 듯 합니다.**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오는 기숙사로 학교에서 걸어서 10~15 분 거리여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반면 먼 기숙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만 30 분이 넘게 걸립니다.
- c. Intensive Course - 교환학생으로 선정되면 TU-Berlin 으로부터 Intensive Course 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한 메일을 받게 됩니다. 학기 시작에 3 주 정도 독일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베를린에 미리 도착해야 하는 시간과 Intensive Course 이후 학기 시작 전에 남는 시간을 고려하면 본 학기 시작 한달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실은, 독일어를 3 주간 배운다고 기본 회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독일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 이후에 계속 배우는 경우를 보았지만, 제 경우는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달 미리 도착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한달 전에 도착하려면 성수기에 비행기 표를 끊어야 하며, 그만큼 도착 후 생활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나갑니다** 독일어를 배우고 싶거나, 언어를 공부하고 싶지 않는 한, 듣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 d. 수강신청 - 포항공대 소속 과사무실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tu-berlin.de/lsf> 에서 개설 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U-Berlin 에 도착하여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출국 준비

- a. 여권 -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b. 비자 - 독일의 경우 미리 받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TU-Berlin 에 도착하여 학교에 여권을 맡기면, 비자를 대신 받아줍니다. 5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c. 카드 및 현금 - 여행 또는 도착 후 정착 할 때 필요한 현금을 미리 바꿔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실에 대비해 2 개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d. 보험 - 여행자 보험으로 TU-Berlin 에서 충족할 만한 범위에서 제일 싼 보험으로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때 영문 보험 증서를 받아 TU-Berlin 에 들고 가야 합니다.

3. 베를린 도착 후.

- a. 기숙사 입사 -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Hausmeister 에게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Hausmeister 의 Office Hours 에 맞춰 기숙사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E-mail 로 신청하면 Tutor 를 통해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기숙사 앞에 있는 Housing Administration 에 가서 기숙사비 및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b. 인터넷 - 입주 이후 인터넷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가 일처리가 늦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신청하면 인터넷 설치만 3 개월이 걸립니다. 실제로 직접 신청한 친구가 4 개월만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하지 말고, 기숙사 앞방, 옆방, 위아래방에 가서 혹시 인터넷이 있는지, 있다면 share 가능할지 물어 보는게 빠릅니다. 그리고 share 하게 된다면 돈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방 주변에서 share 할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기숙사에서 인터넷 사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숙사에 짐 풀고 share 할 인터넷을 찾는게 빠른 길입니다.
- c. 핸드폰 유심 - Vodafone, O2 와 같은 통신사를 방문 해 prepaid 로 유심을 구매합니다. Prepaid 는 매달 데이터 및 통화를 충전하여 쓰는 형식입니다. 베를린에 정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인터넷 및 핸드폰 유심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 주말에 걸쳐서 유심도 사지 못하고, 인터넷 share 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주말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숙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 d. 생필품 및 가전 물품 구매 - 학교 기숙사 주변을 선택한 경우, Tiergarten 역 일텐데, Zoologischer garten, Alexander Platz 등의 역에 가면 변화가가 나옵니다. 대형마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생필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Sukerz 역에서 내려 IKEA 에 가면 가전 물품들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 e. 학생증 - TU-Berlin 학생증을 발급 받을 때 6 개월치 교통비(240 유로)를 내고 교통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지하철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동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학생증처리를 빠르게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편을 통해 바코드가 찍힌 학생증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데, Student Center 앞의 증명사진 찍는 기계에 바코드를 찍고 사진을 찍으면, 몇 일 후에 학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ensive Course 때문에 한달 빠르게 도착한 경우, International Office 에 가서 교통권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면, BVG 에서 교통권을 받을 수 있는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역 BVG 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교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 은행계좌 - 베를린에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Deutsch Bank 에서 개설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은 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도착 후 한 달이 되기 전까지만 개설하면 될 것입니다.
- g. 기숙사비 자동이체 -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Housing Administration 에 가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h. 안멜등 - 거주지 신청(안멜등)을 해야 합니다. Bürgeramt 가서 Anmeldung 을 해야합니다. 구글에 berlin anmeldung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Rathaus 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4 주 정도 미리 해야 합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거주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제 경우, 약속을 잡지 않아 90 일 이내에 비자를 받지 못할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Rathaus 에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우 steglitz Rathaus 에 갔습니다.
- i. 비자 - 학교에서 비자를 대신 발급 해주는 대신, 5 주 가량 여권을 맡겨야 합니다. 혹시 여행 계획을 짤 때 이 5 주의 시간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계획과 겹치는 경우, 비행기표나 열차표 복사본을 같이 제출하면 좀 더 빠르게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여권, 입학허가서, Anmeldung 증서, Health Insurance Wavier, Bank Account statement, 여권사진 2 장입니다. Health Insurance Wavier 는 학교 주변 AOK 에 영문 보험증서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ank Account Statement 는 한달 생활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좌 정보입니다. 700 유로 이상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입국 90 일 이후에 받으면 되는 비자이므로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학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Anmeldung 이 늦어지고, 비자 발급이 늦어져 90 일이 넘어갈까 걱정되더라도 신청만 90 일 이내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경우, 비자 발급이 90 일 넘어가서 걱정을 많이 해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신청이 90 일 이내면 됩니다. 학교에서

발급이 늦어져도 걱정할 필요 없고 혹여나 신청마저 90 일이 넘어도 몇 일 정도는 봐준다고 합니다.

- j. 수강신청 - 전자과의 경우, 영어로 개설되는 학부과정이 거의(아예) 없습니다. Master Course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공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밌어 보이는 것을 택하거나, 학교에서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리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려 전공으로 인정 가능 할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 자유대에서 교양을 들을 수도 있고, ZEMS 에서 외국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3. 생활

- a. 음식 - 주변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의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Zoologischer Garten 역에 Ulrich 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나 조미료는 한인 마트에 가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Hackescher markt 에서 있는 Mekong 에서 구입했습니다.
- b. 식당 - 사실상 요리를 직접 하는 게 쉽지 않아, 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업이 있는 점심에는 학교 식당(Mensa)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Tiergarten 역 앞에 버거킹이 유럽 여행을 다닐 때 가본 버거킹에서 제일 괜찮았습니다. 기숙사가 Tiergarten 인 경우 굉장히 자주 가게 됩니다. 이 외의 식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으면 충분합니다.
- c. 클럽 - 베를린이 클럽이 유명하다고 해서 몇 번 가봤습니다. 일단 한국의 클럽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꽤나 오시고 밤늦게 여는 술집이 없어 사람들이 밤늦게 놀려고 오는 분위기라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공장들을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는 클럽이 대부분이라 딱히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클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저처럼 한국과 달라 재미를 느끼지 못할 사람은 가지 않아도 큰 후회는 없을 듯 합니다. 한번 정도의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 d. 쇼핑 - 학교가 변화가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변화가에 접근하기 편합니다. Zoologischer garten, Alexander Platz, Hackescher Markt 등의 역에 내리면 백화점도 많고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가을학기에 가는 경우에는, 12 월~2 월에 하는 세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쯤 되면 대부분의 상점에서 30~70% 세일을 합니다. 세일 기간을 잘 이용하시고, 세일 기간인 만큼 이쁜 건 굉장히 빨리 빠지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e. 여행 - 학기 중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수업 말고는 크게 할 것이 없는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몇 번의 여행을 통해 크게 느낀 것이

많은 저로써는 여행을 가장 추천합니다. 여행 계획을 한달 정도 미리 세우면 비행기표나 기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f. 운동 - 학교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을싼 가격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 기숙사 주변을 조깅할 수도 있고, 기숙사 1 층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베를린 생활 정리

- a. 성적 - 수강한 과목의 시험을 보면 교수님께 Schein 을 받아야 합니다. International Office 에서 Schein 과 Transcript of Record 양식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Schein 들을 받아 Schein 과 그것을 정리한 Transcript of Record 를 International Office 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 경우, Schein 을 출국 전까지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도착해 교수님께 메일을 통해 Schein 을 받아 모든 서류를 작성 및 스캔하여 International Office 에 제출하면 됩니다.
- b. 시험 - 예정대로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2 월 초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라서 시험을 미리 봐야 했습니다. 이 경우 교수님들께 이야기해서 미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c. 계좌 - 계좌를 닫아야 합니다.

4. 결론

기숙사, 클럽 등의 기대했던 유럽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망이 있었고,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여행이나 쇼핑에서 많은 재미를 느끼고 생각이 들었던 TU-Berlin 으로의 단기유학이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휴식의 기간의 될 수 있었던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중에 한국음식이 그리워 힘들어하기도 했고 여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할만한 다양한 것이 없어 생활에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시간이 존재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혼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하지 못할 여러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고 이것저것 찾아가며 생활했던 그 때의 베를린이 생각이 나고 앞으로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